

악몽 같던 화마 후 3년, 낙산사 생태는 살아있다



(108) 양양 낙산사

최근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관제습도가 가장 낮은 3-5월 사이에 집중된다. 산불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아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양양 낙산사가 대재앙을 당했다. 2002년도에 시작한 108사찰 생태조사사의 대미를 양양 낙산사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관음보살에로의 뜻 깊은 회향도 회향이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낙산사 생태가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도 큰 의의를 두었다.

낙산사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주문에서 시작하여 원통보전-해수관음상-보타전-의상대-홍련암을 아우르는 구역이 하나요, 경내 외곽 숲이 또 하나요, 바닷가 지역이 나머지 한 구역이다.

7호선 국도변에 접한 일주문을 지나 낙산사 흥에 문까지는 다행히 화재를 당하지 않아서 해송과 육송이 울음장장하다. 일주문을 지나 낙산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흥에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화재에 소실되고 새로 복원했다.

흥에문을 지나 원통보전으로 가다보면 갈래길에 낙산배 시목(始木)이 서 있다. 조선 성종 때 낙산사 주변에 처음 심게 된 낙산배는 왕실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황실식(黃實製)로 불렸다. 그러나 낙산사가 관광 개발되면서 옛 과수원은 돌보는 이 없이 풀더미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사천왕문 양쪽 소나무, 전나무, 떡갈나무, 감나무, 왕벚나무 등등 제법 나이든 나무들이 지난 번 화마에 용케 살아남아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떡갈나무는 떡을 싸먹을 만큼 잎이 넓고 두꺼운 참나무이다. 예전에 산중 암자나 요사채 불사에서는 서까래 재료로 많이 썼다.

낙산사는 관음성지답게 처처소소에 관음상을 모시고 있는데, 저마다 특색들을 갖고 있다. 원통보전은 종이로 만든 건칠보살상을, 홍련암은 철로 주조한 철보살상을, 보타전에는 나무로 조각한 목보살상을, 해수관음상은 석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이 모두가 자연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원통보전은 높은 담장으로 아담한 분위기는 있지만, 폐쇄적이라서 사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조선조를 거쳐 오면서 높아졌을 담장은 유감스럽게도 화마에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럴 바에야 이번 복원 기회에 담장을 좀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원통보전에서 해수관음상까지는 낙산에서 가장 그윽하고 호젓한 숲길이었다. 지난 번 화재로 벌거숭이 길이 되고 말았다. 숲길 아래 보타전을 아우르는 비탈진 길 역시 화마를 용케 물리친 몇 그루의 늙은 느티나무와 귀룽나무를 빼고는 모두 화마에 불타 없어져 민둥산이 됐다.

3년 동안 생태복원 불사에 열일이 없었다. 낙산사 주변 산림 복원의 초점은 소나무 복원에 우선을 두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복원에 동원된 소나무는 다른 지방이 아닌 같은 양양군의 군유림에서 옮겨온 것들이라고 한다. 경사면에는 소금기에 강한 해송이 많이 식재됐다.

경내 생태복원이나 조경용으로 식재된 나무들의 종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심어 가꾼 나무들은 비교적 활착이 잘 되고 있다. 생태위기 시대의 자연은 사람의 정성으로 산다고 했다.

산불이 나면 취 종류, 고사리과, 벼과, 사초과, 침 등의 초본들이 먼저 부활하는데, 낙산사도 예외가 아니다. 산박하, 물봉선, 산국, 마타리, 팽이밥, 미역취, 왕고들빼기, 등골나물, 팽이밥, 구절초 등이 고맙게도 절로 돌아서 꽃을 피웠다.

산불 이후 낙산의 생태는 이렇듯 쫓락동기(啄同機)로 되살아나고 있다. 자연은 사라졌던 것들을 열심히 불러오고, 인간은 정성어린 손으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정성으로 심고 머지않아 낙산의 생태도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낙산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준다.

식물이 되살아나면서 곤충상도 되살아나고 있다. 단풍이 떨어지는 계절인데도 경내에서 관찰된 곤충들이 예상 외로 많았다. 방아깨비, 섬서구, 칠성무당벌레, 작은멋쟁이나비, 고추잠자리, 갑보라노린재, 말매미충 등이 부지기수이다.

해수관음상이 자리한 정상부에서 홍련암에 이르는 동사면은 온통 이대 군락이다. 산불 이후 더욱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그냥 둘 것이지, 간섭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해수관음상에서 보타전으로 내려 가다보면 왼쪽 기슭에 공중사리탑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소나무들이 산불에 비명횡사하면서 사리탑 역시 화상을 깊게 입었다. 사리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되는 사리가 발견돼 절망 속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보타전 앞 관음지에는 몇 종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한때 무분별한 방생으로 물고기들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외래종 붉은귀거북들이 살고 있다. 연못의 생명평화를 위해 거두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연못을 지나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흰칠한 키에 한껏 멋이 든 적송들이 도열해 있다. 화마를 온몸으로 꿰뚫어 물리친 장한 소나무들이다. 밀둥치마다 시커멓게 남아 있는 화상이 당시 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불이 발생한 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2차 피해 즉, 산사태이다. 의상대가 앉은 바닷가 쪽 절벽의 일부에도 사태가 나서 지금껏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홍련암 가는 길에는 해당화과 해국이 눈에 많이 띈다. 산불 이후 식재한 것들이지만, 바닷가 주변으로 자생하던 낙산사 지표종인 민콩 이들의 복원은 참으로 잘 한 일이다.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우리나라 제일의 관음성지로, 관음보살의 응현인 파랑새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 기이하게도 낙산사와 홍련암



낙산사 경내 소나무.



낙산사 붉은귀 거북.



군소.



점망둑.

종이·철·나무·돌 등 여러 재질의 관음보살 조성 생태위기 시대 자연은 사람의 정성으로 살아나

주변에는 푸른색(blue)을 띤 그 새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 파랑새의 정체는 우리의 텃새인 바다직박구리(blue rocktrush)이다.

산불이 나면 생태피라미드가 무너진다. 식물들이 먼저 피해를 입고, 식물들을 먹는 곤충들이 사라진다. 이어 양서류와 파충류, 조류와 네발 가진 동물들이 자취를 감춘다. 다행히 낙산사 주변 식생이 되살아나고, 곤충들이 돌아오면서 새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1월 초, 여름철새는 이미 떠나고 겨울철새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라 텃새만 조사했다. 붉은머리오른눈이, 참새, 박새, 쇠박새, 까치, 멧비둘기, 말뚝가리 등이 관찰됐다. 바닷가에서는 알락할미새, 논병아리, 팽이갈매기, 바다가마우지 등이 관찰됐다.

일주문-유스호스텔-비치호텔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다행히 화마를 피해서 예전의 생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식생은 적송과 해송이 우점하고 있는 가운데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이 약세를 보이고, 간간히 키 작은 활엽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을 포함해 낙산사 경내에서 확인된 귀화초본들은 개망초, 망초, 애기수영 등 23종이 조사됐다. 일순에 여유가 생기면 거두어 낼 일이다.

고라니 서식은 배설물로 확인이 됐는데, 스님 청문 에 따르면 이따금 야밤에 경내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바닷가 지역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전진항 횡집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나 파도에 밀려온 물고기 사체를 먹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는 우리나라 주요 사찰 가운데 바다를 낀 것

안 되는 해안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해안은 크게 사빈해안, 갯벌해안, 암석해안 등으로 나뉘는데, 낙산사 해안은 사빈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산은 바다가 있어 더 아름답고, 바다는 낙산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 여기서 심심치 않다는 것은 먼 바다로부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산을 침식하면서 해식(海蝕)과 같은 다양한 암석해안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의상대와 홍련암도 바로 이 해식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바닷가 쪽으로 마치 성벽을 방불케 하는 낙산사의 시멘트 울벽이 보인다. 그냥 두는 것보다 벽면을 녹화하는 것이 좋다. 산불 이후 일순이 바빠서 미처 손을 못 댄 모양이다. 나중이라도 손쉬운 담쟁이덩굴만 올려놓아도 좋은 녹화가 될 것이다.

바닷가 사빈지역에는 바닷바람과 염도에 강한 식물들이 특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국을 비롯하여 수송나물, 갯강아지풀, 갯메꽃, 갯방죽, 갯완두, 쯤보리사초 등이 그것이다. 11월 초순 이 지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만도 슬퍼랭이 등 6종이나 된다.

파도가 오르내리는 모래톱에 자하(Mysidaceal)가 무리지어 죽어 있다. 자하는 일명 '곤쟁이'라고도 하는 작은 새우이다. 이들이 모래톱에 집단사한 것은 천천히 멀치나 송어떼의 공격을 피해 모래톱에 올라와 죽은 것이다.

물속에 사는 군소(Aplysia kurodai)는 물속의 해초를 먹고 사는 연체동물이다. 크기는 20-30cm가량 되며, 생김새는 겁질 없는 고동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연상이 된다. 적이 건드리면 자주색 물감을 퍼뜨려서 접근을 막는 습성이 있다.

연안 서식 어류로는 멸치, 전어, 놀래기, 송어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은 물속의 점망둑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동해안에서만 서식하지만, 크기가 7cm 미만인 작은 물고기이다. 배지느러미에는 흡반이 있어서 바위에 잘 붙는다.

때마침 바다가마우지가 바위췌 위에 앉아 날개를 말리고 있다. 바다가마우지는 한강에서 보이는 민물가마우지와는 다른 종이다. 가마우지는 낙산해수욕장과 설악해수욕장 사이에 자리한 인적 드문 바위해안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또한 바다직박구리와 함께 낙산사의 깃대종이라 할 만하다.

최근 들어 낙산사 앞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현상은 바다 속 바위가 마치 흰 페인트를 칠한 듯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환경의 이상변화에 불림이 없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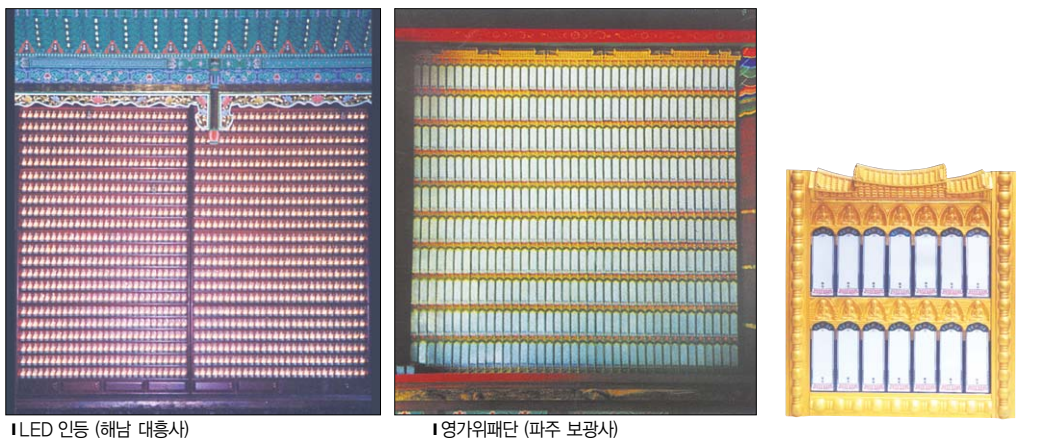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1LED 인등 (해남 대흥사)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효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가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최신식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1최신식 연등자동승강장치 (광주 보광사) 1LED 전구 (국내 공장 자체 제작)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버튼 하나로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 불교예술휄(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 불교예술휄(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욱(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